

제 125 호

성 소 주 일

부 활 제 4 주

1975. 4. 20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감 른 □



## 나의 성소는 ?

박 종 근 신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 바쁘고 고난한 일들을 멈추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미사 제례로서 그 분께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바치려고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열 한번째로 맞는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란 말은 성서에서 나온 말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소집한다" "초대한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르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성소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기에 더욱 뜻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약삭빠르게 자기의 안전과 안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권력을 타협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보스럽기만 보이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위선과 형식에 묻혀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위해 동분서주하시다가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는 삶을 영위한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은 용기 백배 하여 그분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다 간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의 생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세를 받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삼고자, 그러므로써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하고자, 거기에 나의 생을 걸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간이 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는 삶 속에 구원이 있다는 이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이진리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므로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생활로 증거할 사도직에 불려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생애를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도록 전 인류를 자기에게 초대하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당신의 대리자가 될 사도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직무를 이 세상에 계속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순수하고 영생의 용기를 지닌 청소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제 성소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시어 오직 성부의 뜻을 따르며 모든 것을 포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을 철저히 본받도록 남녀 청소년 소년들을 특별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수도 성소입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만년이 흘러가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나에게 허락된 나의 짧은 생은 단 한번 밖에 없는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숙고해 보는 오늘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 **입당송** 야훼님 사랑은 땅에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도다. 알렐루야.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도행전 2 : 36-41 성서 P. 268)  
하느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 **증계송**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피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티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 **제2독서** (베드로 전서 2 : 20-25 성서 P. 531)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내가 알아보고 내 양들도 나를 알아보도다.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0 : 1-10 성서 P. 230)  
나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 □ 신자들의 기도

1. 주수 할 것은 많으나 주수 할 일꾼이 적어 항상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불리움에 초대되어 당신의 나라를 널리 퍼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2. 주여 사제들과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신학생들은 저마다의 장차 맡을 임무를 깊이 깨달아 착한 목자가 되는 용기와 인내를 주소서 ◎

3. 정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들이 끝까지 참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모든 위정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지도하도록 하시어 이 땅에서 범람하는 불의가 제거되도록 도와 주소서. ◎

4. 죽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주여! 그들에게 당신의 품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드리는 이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 아멘

###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죽으셨던, 착하신 목자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 숲 정 이 산책



— 성 소 주 일 —

# 나 장가 갈래요

김 환 철 신부



오늘도 고교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보면 재미스러웠던 일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그 소중한 추억담 중에서도 신부가 된 동기에 대한 추억담은 너무나도 역력하다.

오늘에도 그때 그 시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성인신부가 되었을텐데, 하는 무념을 해 본다.

고등학교 2~3학년때 사시사철 평일미사에 거의 빠진 일이 없고 각종 신집회(매피회, 성심회)는 물론 봉제40일 간 겸실을 대재로 지키고 성로신공을 매일 바쳤으니, 남이나 나를 신학생으로 착각할만도 하다. 이따금 본당 교우들로 부터 신학교에 가라는 권유를 받을때 마다 "나 장가 갈래요"하는 말이 입버릇 처럼 되새졌다.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교우들의 말이 진심에서였다면 "나 장가갈래요"하는 말도 농담이 아니라 진심에서 울어나오는 솔직한 대답이었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장가 가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이 살아지고 말았다.

고교 3년때 유치원 여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무척 나를 좋아했다. 그러나 서로가 열심히 신앙에서 좋음이었던 연정에서 좋음이 아니였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나 보나 4년이나 위였으니까-

그녀는 뒤늦게 안일이지만 이복에서 남하 피난살이를 하였고 오빠는 일본에 유학을 가게되어 서로 소식을 모르던 차 우연히 학생모집 광고란에서 조영식 오빠의 이름을 발견하여 서로 상봉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오빠는 신홍대학 학장(현 경희대 총장)이었다. 그녀는 나를 신홍대학에 공부시켜주겠다고 올라오라 밋밋했다.

생전 서울구경 한번 못한 시골때기가 서울에 올라가 이곳 저곳 구경질에 한 친구를 따라붙인 것이 신학교에 당도했다. 전연 예상치 않았던 신학교 마당에 올라서니 아찔함을 느꼈다. 평소예 열심했던 신앙의 열이 일순간에 찬드나 끊어왔나 보다. "주여 주님의 부르시미라면 이곳에-"

이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20년간 숨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먹음었다. "네 나이 세살-사정에 이르렀을때 나는 너를 성모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바 있었나 묵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아들을-"  
어연 사제서품 14년-그러나 고독을 모르고 살면서 천주님께 합장하며 감사드리며 사는 나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전동성당 주임신부)

# 나의 성소

김 보 나 수녀



"어린이의 혼인 잡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묵시록 10: 9>  
교회의 장엄한 축복 속에서 영원한 약속의 종신 허원을 하던날은 우리 수녀원의 후보 축일인 성체 접례일이었다

"오늘의 이 즐거움을 영원히 간직하세요"라고 여러 형제 자매들의 축복인사를 받았다. 몇년이 흐른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넘쳐난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첫 처음, 조그만 짐을 꾸려 가지고 성체회 수녀원의 문을 들어서던 날, 성체의 창설자 윤율수 박사 신부님을 뵈었다. 그때의 감격은 교육의 후보 성문. 보스프를 뚫는 듯 했다. 오로지 한 길!

사랑의 성사 정신을 따라 "넘치는 즐거움 전해보리라" 남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는 자가 되어보리라"고 나는 길이 길이 가슴속에 다짐을 했다. 나의 수녀 생활은 시작되었다. 성체회 대한 공경심으로 모든 회원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행의 실천에 마음을 더욱 모두였다. 첫 초소입으로 성라자로 요양원에 갔다. 그곳은 버림받은 형제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녀원 생활은 인천교구, 부산교구, 수원교구, 전주교구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팔도장산 어더를 마다 밟고 다녔다.

본당에선 어린이들의 벗, 병원에선 환자들의 영육의 간호, 학교에선 소녀들의 꿈울, 보육원에서는 꼬마들 엄마가 되기도 했다.

주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오직 주께서 함께 제심을 느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러한 나를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이 축복 받은 수도 생활!

3남 4녀 중에 맏딸이었던 내가 수녀가 된 10여년이 지나서 나의 귀염둥이 막내 동생 아가다 자매도 수녀가 되었다. 성체회 동산에서 성소의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총의 선물을 가득히 채워 주시는 이 부처생활에 나는 만족하고 있다. 오늘도 늘고 병드신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부디 두 자매가 몸 건강하고 착한 수녀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충실한 일꾼이 되기만을 두 손 모아 성모님께 기도 드리고 있다"고.

한 평생 은총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 곁에서 살으리다.  
(성체회 수녀)

# 하찮은 사건 안에서

박 종 상 신부

어릴때의 일입니다. "야! 신부님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인사드리며 기뻐하는 반면에 두려움은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다. 평소에도 그렇게도 슬픈 외울 수 있었던 경문이다. 그런데 멀린다. 그나마 멀마리 하다 보니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어떻게 된것인지 나도 모른다.

이유도 멀어지는 불호령. 그래야 하는 것처럼 때 맞은 종아리를 슬슬 문지르며 잘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어디 그뿐이야? 호랑이 같기도 무서웠던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 신부님 앞에서만은 무릎을 꿇고 앉아게한다. 한 마디로 무섭고 감히 접근하지 못할 높은 분이시다.

그러나 이게 웬 력이나? 신부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먹고 싶던 알사탕이 아닌가? 누가 볼까? 빼앗아 갈까 싶어 얼얼 입에 넣는다. 그 귀중한 선물(?)을 꼭 드러 단숨에 먹을 수 있겠는가? "이리 저리 굴리며 꼭 내보이기도 하고 자랑하며 다닌다. 허나 웬 걸? 목재이 입에도, 차올때장도 무물치러는 것이 아닌가? 그럼 신부님 은 이 세상과의 사랑을 모두.....  
하여 신부되겠다고 생각해 본다. 높은 사람이 되어 보

고도 살고, 모든이가 무서워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도 되어야겠으며, 알사탕을 무진장 만드는 주머니를 갖고 계신 신부님이 되리라고 동경했던 것이 다. 천부지의 좁은 소견일까? 그렇게 숙단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생각에 성소란 귀중한 것이라 한다. 과연 귀중하다. 글자 그대로 거룩한 부름이니 귀중하나, 그 부름이 이 세상에서, 또한 하찮은 것 안에서 이루어 지니 더욱 귀중한 것이 된다. "저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오"하니까 따라 나섰다는 나 타나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지 않았던가? (요한1: 47~51) 다시 말해, 조그만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것인지모르는 이 부름을 잘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봅시다. 숙되게 말하여 뱃눈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야겠어요. 거창한 것처럼 생각지 말고, 평계없이 솔직한 우리의 대답으로 성소를 따릅시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성소 특집□

□대화의 광장□

요심이 (91) 김병오



# 나의 성소

성 태 수

성세성사로서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께로, 하느님 나라에로의 불림을 받았으나, “나를 따라 오시오”(마르코 1:17)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하느님의 “개별적인 꼬임”을 당한 자들이 성직에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하느님의 이 “거룩한 꼬임”안에는 성소를 받은 자들에 대한 철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복음성서안에 나타난 소명과 추종에 대한 대목들을 읽을 때,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불안과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의 안정과 안락을 떠나 예수님께서 사신 것 처럼 정처없는 생활을 해야 하며, (마태오 8:20) 부친의 장례식까지 포기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전심 전력 헌신해야 하며, (마태오 8:22) 집안 식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려는 조그만 미련까지 포기하고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루가 9:62) 또한,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마태오 19:12) 세상의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 (마태오 6:19~21) 예수님의 이러한 철저한 요구를 어떻게 알아 들어야 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해석학적인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목들 뒤에 숨어 있는 취지일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된다는 어려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도 누구의 사랑도 받지 않으며, 이성에 대한 사랑이 싹트면서도 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어려움. 남을 이끌고 약한자를 붙들어 주면서도 자신은 어느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어려움. 하느님을 불신하는 이 세대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살려야 하며, 생명과 양식에 대한 가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되어 앞에 가로 놓여 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무능과 약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클레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한없이 위안과 기쁨으로 나를 인도한다. “당신들이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뽑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보내어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이 청하는 것을 다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요한 15:16)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같은 예수님의 전권 의식 때문에 무식했지만 소박했던 어부인 베드로를 당신의 으뜸 제자로 삼지 않은것은가 성소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어떠한 타협도, 이해 관계도 아님을 느꼈다.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을 개방하며 “네”하고 대답할 뿐이다. 어느 갈릴 수녀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내 일생 가장 하느님께 감사드리는데는 하느님을 알게 해주신 사실이랍니다.”-과연, 하느님과의 합일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기쁨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주님께만 신뢰하며, 성소의 길에 충실히 살기를 다짐해 본다.

대전 신학 대학 연구과 1년



\*교형 여러분의 집\*  
개집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②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빌 중앙 시장통  
전화 ② 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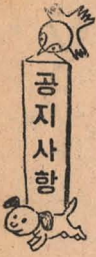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료,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 0876 김테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본당 순회 교육 (4월20일 오전 10시-오후 4시)-수류, 순창, 임실 성당  
(4월27일 오전 10시-오후 4시)-고창, 월명동, 중등 성당
2. 제1차 여성 꾸르실료 (4월 22-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4,000원)  
① 참가를 희망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 꾸르실료의 성공을 비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가족계획 세미나 개최: 4월19일 오후 2시-20일 오후 5시.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시외: 1,500원 (1박2일) 시내: 1,200원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박종삼  
사도 회장 김영진

김 팔만씨 장례 수고로 1,000원 회사,  
지난주 성미 8되. 누계: 성미 10되, 성금 3,000원

1. 아치에스 행사: 다음 주 <27일> 오후 2시.  
단원과 협조 단원 전원 참석
2.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신학생에게 물심 양면으로  
협조 합니다.
3. 주일학교 교리교사 야유회: 4. 27 <위봉 폭포>
4. 어린이 보례 예식: 4. 25 어머니 미사후
5. 병자 봉성제: 4. 21~24일, 사무실 신청 바람.
6. 축 결혼: 4월 20일 12시 30분 중앙성당에서.  
신랑 박영호군, 신부 최금자양  
□복지가 특별 현금: 서노송동 강화자 1,000원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소 주일: 정성어린 특별 현금 요망.
2. 미사 변경: <주일> 10지, 저녁 7시 30분  
<평일> 7시 30분
3.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성미: 2말 7되, 누계: 379.5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성소 주일 특별 현금을 주일금 봉헌시 같이 봉헌 함  
시다.
4. 성당 신축 현금에 감사 드립니다.  
남노 채충식: 50,000원 양윤모 사장: 30,000원  
김영구 신부님: 10,000원 남노 박정자: 10,000원  
6일~13일까지: 40,900원 이틀없이: 10,000원  
누계: 150,900원 누계: 2,250,917원  
□신축 성미 누계: 252말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임원, 반장, 구역장 회의 <애령회 관계>  
10시 미사후
2. 노송동 신축 회사금 내주까지 본당 사무실 접수바람
3. 성소 주일: 신학생 부형, 중고 학생 전원 오후 2시  
까지 강당에 모여 주시기 바람.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인현재

1. 꼬미씨음 월례회: 오후 1시 30분
2. 노송동 성당 건립 현금: 940,000원 감사 합니다.  
<함승천 신부>
3. 61주년 기념 일일 다실 수익금: 43,600원  
감사합니다. <성 가정 회장>
4. 중고 춘계 체육대회: 4월 27일
5. 61주년 기념 성미: 13말 <세대수: 146>  
누계: 24말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조창훈(실바노) 남문열 금융당 시계점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자, 예비자 특별교리: 매주 <토> 8시
2. 젊은이 단합대회<위봉폭포>: 4월 27일 9시30분 출발
4. 중·고등 학생 성소 좌담회: 공식 미사후  
관심 있는 분들도 참석 바람.
5.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6. 애령회 성미 성금: 성 주간 성미: 2되 성금 2,000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창 김부 신태인 정	신용조합 월례회	3,11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확	요셉회	37,455원
		청년회 성소의 밤 개최	19,745원			청년회 팔봉 묘지 꽃씨 기증	27,916원
		신우회 정기 회합	6,180원			신용조합 임원회의	4,245원
		본당 의사 사업에 협조 바람	3,655원			중·고등생 성소 특별 좌담회	11,805원
		신자 주소록 작성	15,030원			신용조합 월례회	16,460원
제 2 지구	대울동 월명동 동일	신자 가정 순회 방문	1,655원	제 4 지구	중·고등 부자동 서학동 전	아치에스 행사	58,005원
		승천 대축일 준비 위원회	35,245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30,275원
		전례 위원회 월례회	24,130원			중·고등생 성소 특별 좌담회	11,805원
		15분 기성 신자 교리	15,280원			신용조합 월례회	16,460원
제 3 지구	고금여 산산산	성소 주일 행사	3,415원	제 5 지구	남부 주계 장진 준	사도회, 반장, 구역장 회의	12,881원
		성우회 월례회	9,875원			꼬미씨음 월례회	57,376원
		성당 미화 작업에 협조 바람	4,035원				